

만남

2017년 12월
통권 155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님 : 박 철 현 미카엘

Katholische Koreanische Mission in Hamburg

<http://mannam.cathms.kr>

신부님 칼럼	+ 나의 대림 시기-----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가난한 이의 기도-----	4
그리스도인의 유머	판결-----	7
교리	신앙의 재발견 16-----	8
기도 소개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2월 기도지향》

❖ 일반 : 노인

노인들이 가족과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지혜와 경험으로 신앙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를 가르치도록 기도합시다.



나의 대림 시기

나의 대림 시기라? 솔직히 딱히 생각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어쩌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그냥 허비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실 대림 시기는 차분한 마음으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기인데, 실제로는 연말과 맞물려 차분하기는커녕 오히려 분주하게 보낸 때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망년회’의 분위기에 휩쓸릴 때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망년회’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여간해서는 사용하지 않는 단어입니다. 뭐가 그렇게 못마땅해서 한 해를 잊어버리자고 하다니! 잊을 망자를 쓰는 망년회는 한 해 동안 살아온 흔적을 깡그리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송년회’라는 말을 사용하지 왜 굳이 ‘망년회’라는 표현을 쓴 것일까요?

확실히 살아간다는 것은 성취보다는 후회가 더 많이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그 때, 이렇게 했다면 더 나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한 해를 잊어버리도록 만드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림 시기는 차분하고 경건한 마음보다는 분주하고 흥청대는 시기로 변한 건 아닐는지요?

그렇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대림 시기 중 특별히 기억에 남는 것은 대림환과 Rorate 미사입니다.

4개의 초는 희망입니다. 초가 하나둘 켜질 때마다 그 만큼 기다림은 절정에 이르게 되고 주위가 점점 밝아지는 것처럼, 세상의 빛이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되니 대림환은 우리의 삶도 조금씩 환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도 함께 담아두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Rorate 미사는 대림 시기 내 평일 새벽에 드리는 미사입니다. 조명이나 마이크 등 일체의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순수하게 촛불만으로 드리는 미사입니다. 분주한 일상에서 정말 차분한 마음이 저절로 들게 하는 미사였습니다. 물론 이 전통은 오스트리아에서만 경험했습니다.

어쩌면 대림 시기는 이처럼 아직도 만들어 가는 시기는 행여 아닐는지요?

가난한 이의 기도(시편 86,2-5.9-11)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89장 “주 하느님 자비로이”를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기도로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저희들과 함께 하시는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이끌어주소서.
- 저희를 사랑해주시는 주님, 함께 모인 이 자리에 사랑이 가득 차
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시편 제86편 2절에서 5절,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86, 2 제 영혼을 지켜 주소서.
당신께 충실한 이 몸입니다.
당신은 저의 하느님
당신을 신뢰하는 이 종을 구해 주소서.
당신의 거처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3 당신께 온종일 부르짖으니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4 당신께 제 영혼을 들어 올리니
주님, 당신 종의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 5 주님, 당신은 어지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는 분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이에게 자애가 크십니다.
- 9 주님, 당신께서 만드신 모든 민족들이 와서
당신 앞에 엎드려 당신 이름에 영광을 드리리이다.
- 10 당신은 위대하시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시니
당신 홀로 하느님이십니다.
- 11 주님, 제게 당신의 길을 가르치소서.
제가 당신의 진실 안에 걸으오리다.
당신 이름을 경외하도록 제 마음을 모아 주소서.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느님께 간절히 기도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때 느꼈던 감정을 나누어 봅시다.

☞ 하느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그것에 대해 함께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기도를 ‘하느님과의 대화’, ‘영혼의 숨결’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대화한다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며 일방적인 통보나 협박, 흥정이나 타협이 아닙니다.

상호 통교로써 서로의 관계를 형성하고 합의점을 도출해 내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무나 자주 하느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노력 없이 내 말만 하고 그쳐 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주시는 좋은 것들을 미처 받지 못하게 됩니다. 사실 그분은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때를 기다리십니다. 그럼에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분이 주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고자 청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지향과 믿음을 가지고 청하고 보채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음을 모아 구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하는 기도보다 여럿이 함께하는 기도가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러나 결코 머릿수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 의합한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 사람이 한마음 되는 것보다 때로는 두 사람이 한마음 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이 소중합니다. 기도를 ‘영혼의 숨결’ 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끊임없이 기도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신앙인으로서 죽은 것입니다. 영혼의 숨결을 유지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정성을 다해 꾸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되 바른 지향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특별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없다. 그저 단순한 말로 청하여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청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그것을 찾느라고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단순하게 바라는 것을 청하고 “다만 내 뜻대로가 아니고 당신의 뜻대로”라고 말해야 합니다. *(반영역 신부님, 레지오 훈화 중에서)*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

뉘봅시다.

(나눔 후) 이제 이번 달의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91장 “구세주 빨리 오사”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유머 ❖

♣ 판결

어느 성당 앞에 술집이 생겼습니다. 경건해야 할 성당 앞 분위기가 매우 이상해졌지요. 그래서 신자들 중에 일부는 ‘술집이 망했으면.’ 하고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집에 불이 나서 완전히 타 버렸습니다. 원인도 모르게 불이 난 것이지요.

술집 주인은 성당 측을 고소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술집 주인은 이렇게 주장하였습니다. “성당에서 우리 집에 불이 나라고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신자대표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니, 그게 말이 됩니까? 불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정말로 불이 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러자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술집 주인은 하느님의 능력을 믿으니 천국에 가서 하느님께 보상을 받으시고, 신자대표는 하느님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 앞으로는 기도하지 마십시오.”

16. 주님의 기도

“저희에게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분에게 직접 올바르게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자 했던 한 제자의 청원으로 주님께서 몸소 당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유일한 기도가 바로 ‘주님의 기도’입니다.(루카 11,1-4; 마태 6,9-13 참조)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느님 아버지께 바치는 기도라는 뜻을 담고 있기에 주님의 기도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복음서 전체의 요약이자 그리스도교의 기본이 되는 주님의 기도는 가장 완전한 기도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올바르게 바랄 수 있는 것을 모두 청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청해야 할 순서대로 청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님의 기도는 단순한 기도 이상의 것이며 하느님 아버지의 마음에 직접 이르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의 오랜 전통에 따라 전례기도 안에 뿌리내리고 있으며 ‘사도신경’과 더불어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오래된 기도문입니다. 실제로 교회가 바치는 공적 기도인 성무일도의 기본 요소이기도 하며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인 세례, 견진, 성체성사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기도입니다. 특히 우리는 매 미사 때마다 영성체하기 전에 준비기도로 주님의 기도를 바치는데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이를 “성령 청원 기도에 담겨 있는 청원과 전구를 요약하며, 영성체로 미리 맛보게 될 천국 잔칫집의 문을 두드리는 것(2770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기도는 하늘에 계신 자비로우신 아버지께 드리는 일곱 가지 청원을 담고 있는데, 전반부의 세 가지 청원은 하느님과 우리가 그분을 올바르게 섬기는 방식에 관한 것이고, 후반부의 네 가지 청원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들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님의 기도는 하느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성사를 통해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요한 1,18)” 그분과 하나 되어 감히 하느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자녀다운 신뢰심과 함께 우리를 당신 자녀로 삼아주신 하느님께 대한 감사와 찬미, 흠숭의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이끌어 주셨으며, 자녀들이 아버지께 드리는 신뢰의 기도라는 점에서 다른 모든 기도들과 구별되는 특별함을 갖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자녀로 삼도록 해 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는 것입니다.”(로마 8,15)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하느님의 이름을 모든 것 위에 둔다는 뜻으로, 우리를 통해 하느님 이름의 거룩함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분의 계명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게 자녀로서 도리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주권이 펼쳐지고 다스림이 이뤄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대로 다시 오실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미 현세에서 시작된 하느님의 통치가 영원히 이루어지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아버지의 뜻은 모든 이가 서로 사랑하며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명으로 이루신 구원 계획이 현세에서 완성될 수 있도록, 나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에 따라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기를 청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느님 아버지께 자녀다운 신뢰심을 갖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청합니다. 이는 또한 이웃의 굶주림을 외면하지 말고 가진 것을 나누라는 호소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성체를 모시는 것은 우리에게 일용할 영적 양식입니다.

저희에게 잘못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것은 하느님께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총에 힘입어 우리는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비롭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도 하느님의 자비를 얻지 못합니다.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몸소 유혹을 받으셨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유혹 앞에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시기에 시련을 겪을 때 하느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러므로 분별력과 용기를 주시는 성령을 청하고, 온갖 불신의 유혹을 물리쳐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은총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구하소서

마지막 청원은 악의 세력이 주도하거나 선동하는 현재와 과거, 미래의 모든 악의 세력에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을 하느님 앞에 가져오고 그 모든 고통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전능하신 하느님께 간청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칠 때에는 주님의 기도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그대로 이루어지소서.’라는 의미인 아멘으로 동의를 표하고 끝을 맺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며 드리는 기도(작가 미상)

사람과의 헤어짐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되
그 사람의 좋은 점만 기억하게 하소서.

시간을 아끼게 하소서.
하루해가 길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내 앞에 나타날 내일을 설렘으로 기다리게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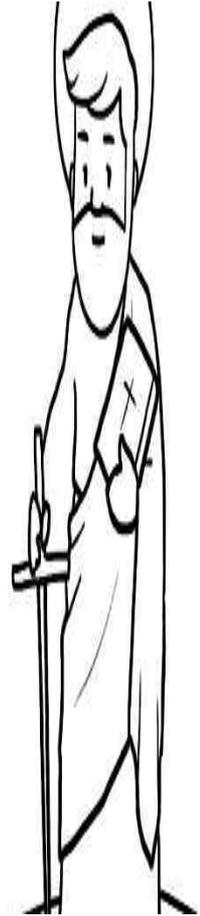
몸이 쇠약해짐을 느낄 때도
삶을 허무나 후회나 고통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지혜와 너그러움과
부드러움과 안정을 좋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를 잔잔하게 하소서.
그러나 폭풍이 몰려와도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잔잔함을 새롭게 감사하고
이전보다 더 깊은 평화를 누리도록 하소서.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가정의 기쁨을 늘 가슴에 품게 하시고
이런 마음을 전할 기회를 자주 허락하소서.

언제 어디서나 사랑만큼 쉬운 길이 없지만
사랑만큼 아름다운 길이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 하루도 그 길을 택하게 하소서. 아멘.



질문

신자가 아닌 사람입니다. 제 친구 중에는 성당에 다니는 이들이 많은데 저는 아직도 성당에 나가야 할지 망설이고 있습니다. 친구들은 일요일만 되면 뭐가 그리 좋은지 성당에 다 가고 저는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성당에 가면 뭐가 그리 좋은가?’ 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성당에 나가면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성당에 다니면 행복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사람을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뇌는 사람에게 중독되도록 돼 있다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마음에 맞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노는 시간에 사람의 심리적 신체적 건강 상태가 가장 좋다고 합니다. 아무리 큰 고민을 한 사람일지라도 좋은 사람들과 즐겁게 지내면 심리적 신체적 회복이 상당했다는 것이지요.

성당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대화를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거대한 치유의 장’입니다. 일반적인 모임과는 차원이 다른 만남의 장입니다. 그런데 가끔 어떤 사람들은 “성당에 다니는 것들은 매일 놀러 다닌다.”고 힐난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그런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성당에서의 생활은 놀고먹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하는 생활인 것을 몰라서 하는 말이지요.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Martin Seligman)은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동시에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즐겁지만 의미가 없으면 그 즐거움은 공허함을 줄 뿐이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은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성당은 인간의 존재 의미와 참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인간의 행복,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시간이 날 때마다 봉사하러 다닙니다. 어렵게 사는 분들의 집을 방문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날개 없는 천사 같은 분을 정말 많이 보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신자들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깊어졌습니다. 상담소를 찾는 분 중에는 삶의 무의미함을 하소연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울증의 원인 중의 하나가 바로 ‘무의미’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허전하고 우울하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성공한 것과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은 별개라는 것이지요. 사회적으로 상당한 성공을 이룬 어떤 분은 초창기에는 서로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서로 간에 정이 깊었는데, 성공을 이뤄가면서 서로에 대한 의심이 커져 대화가 안 되고 거리감만 느껴지는 것이 외롭고 참담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의미 없는 성공은 우울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의미 있는 성공이 무엇인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려 주는 삶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행복입니다. 사람들을 만나 얻는 기쁨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사랑을 강조하신 것이지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 영적인 행복감입니다. 영적인 행복은 기도 안에서 얻어지며, 일상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차원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 행복감은 사람이 진정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사람이 겪는 우울증이나 불안증들이 어찌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에서 비롯됐음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적인 자유로움을 주는 것이 영적인 행복감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우리 교회 안에서 열심히 사람 중 영적 체험을 통한 행복감을 맛본 분들은 세상 것에 대한 미련을 내려놓고 사막으로 산으로 하느님과 만남만을 지향하는 삶을 가지려고 떠났던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정을 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을 가진 사람들은 가정 안에서 기도를 통해 영적인 행복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는 피정이란 시간을 통해 그런 행복감을 제공해 주려고 합니다.



9시 15분 - 기다리시는 하느님(손우배 신부님)

오래 전, 저는 평창동에 있는 공동체에 머물면서 매일 마포구 신수동에 있는 예수회 관구본부로 출근을 하였습니다. 승용차 1대로 여러 신부님들이 함께 아침마다 출근을 했는데, 출근시간은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저는 9시에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을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에 당시 수도회 장상이셨던 신부님께 8시에 떠나자고 했습니다. 신부님은 “9시 15분이 제일 적당한 시간인데…”라고 말하셨지만 제가 계속 8시에 가자고 하니 “그럼,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출근시간인 관계로 차가 너무 막혀 사무실에 도착하니 1시간 가까이 소요되었습니다. 차라리 조금 늦게 출근하고 그 전에 공동체에서 다른 일을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해서 저는 다시 시간을 수정하여 8시 30분에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신부님은 또 “그렇게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출근시간이 그다지 단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9시 15분에 출근하기로 했고, 출근시간은 30여분 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가장 적당한 출근시간이 9시 15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신부님도 “글쎄 9시 15분이 좋다니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선배이고 또 전에 여러 번 시도해본 결과 9시 15분이 가장 적당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어쩌면 우리는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시도해보니 9시 15분이 가장 출근하기에 적당하다. 그러니 괜한 말하지 말고 그냥 9시 15분에 가도록 하자.” 자신이 나이 많은 선배이거나 스스로 경험이 많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험 없는 아랫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신부님은 정답을 저에게 들이밀고 강압적으로 명령한 것이 아니라, 제가 스스로 9시 15분을 찾아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우리를 양성하시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스스로 9시 15분을 찾아가도록 하느님께서서는 인내심을 가지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이지요.

되찾은 아들의 비유(루카 15,11-32)에서 저는 처음에 왜 철없이 자신의 몫

을 달라는 작은 아들에게 아버지는 그의 몫을 나누어 주었을까 생각했습니다. “안 된다. 네 몫의 재산을 가지고 집을 떠나면 너는 반드시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는 돼지들이 먹는 열매 꼬투리로라도 배를 채우려 할 것이다. 그러다 결국 너는 나를 찾아와 자신을 품팔이꾼이라도 삼아달라고 애원할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냥 여기 있어라.”고 아버지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는 작은 아들의 말대로 재산의 몫을 나누어 주었고, 스스로 깨닫고 돌아오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서는 빌라도 앞에서 또는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부활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조용히 부활하셨을까요? 군중 앞에서 부활하셨다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었을 텐데요… 왜 주님께서서는 지금 모든 사람들에게 확실한 당신의 현존을 보여주시지 않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존재조차 의심하게 하시는가요? 하늘에서 항상 당신이 내려 보심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면 모두 당신을 믿을 텐데요… 때때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조차 이해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프란치스코 성인에게 나타나시어 “내 집을 고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인은 그 말씀이 성당을 보수하라는 것인 줄 알고 지붕 위를 올라갔다고 합니다. 나중에 그 말씀은 성당이라는 건물이 아니라 병든 당신의 교회를 치유하라는 말씀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서는 분명하게 정답을 가르치시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알아가도록 이따금 표징을 보여주실 뿐입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해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당신 말을 따르는 로봇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벼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마치 힌트를 가지고 퍼즐을 풀어나가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서는 결코 정답을 강요하지 않으시고 인간 스스로 9시 15분을 찾아가도록 기다리십니다.

하느님은 기다리심입니다. 저도 주변 사람들을, 특히 나이 어린 사람들을 기다려주는 미덕을 청해봅니다.



❖ 1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나탈리아 (St Natalia)	김 성 미	25일	마 누 엘 (St Manuel) 엠마누엘라 (St Emmanuela) 노 엘	김 무 진 허 선 애 이 동 훈
2일	비비안나 (St Bibiana)	남 공 현	26일	스 테 파 노 (St Stephen)	이 명 원 정 순 권 박 동 려
3일	비 양 카 (St Bianca)	허 미 란			
4일	크리스티안	허 채 열 김 호 현	27일	요 한 (St John)	이 기 열
6일	아 셸 라(Asella)	김 모 경			
8일	마 리 아 (St Maria)	박 순 옥 이 순 자 이 영 희 홍 미 옥	29일	다 비 드 (St David)	김 용 일
13일	루 치 아 (St Lucia)	박 우 연 배 수 현 한 상 아			
15일	크리스티아나 (St Christiana)	홍 춘 자	사 비 네	이 금 자	
16일	노 아 아델하이드	박 노 아 진 윤 희			

❖ 1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비비안나 (St Bibiana)	이진아(O)	23일	빅토리아	강연희(H)
	바울리나	강미향(H)	25일	아나스타시아 노 엘 라	김영숙(B) 김유경(H)
13일	루 치 아 (St Lucy)	최예린(B) 문정자(H) 강은지(B)	26일	스 테 판 스 테 파 노 (St Stephen)	문우영(H) 부종배(O) 유순식(H)
	오티리아	김선우(O)		28일	스 테 파 니 돔 나

❖ 12월 성가번호 ❖

12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3일	88	210	163	91
10일	93	512	500	89
17일	97	340	170	96
24일	95	215	180	92
24일(성탄 밤미사)	별도 예석서 참조			
25일	107	102	105	101
30일	423	211	176	77
31일	114	217	164	113

❖ 12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2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3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뎃다)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2구역
10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이영원(베드로) 이정옥(크리스티나)	주일학교	3구역
17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4구역
24일	백정선(토마스) 이영자(헬레나)	허채열(크리스티안) 허영란(엘리사벳)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김진호(프란치스코)	전체신자
30일	이경구(안스카) 유곡지(아그네스)		이현묵(요셉) 최장용(레오)	전체신자
31일	김민수(아우구스티노) 이정훈(요나스)	김잔디(아그네스) 윤예진(모니카)	주일학교	청년회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0월 29일	11월 5일	11월 12일	11월 19일
계(€)	221.58	236.24	250.91	193.60
2차 헌금				220.40
헌납금	70.00	130.00	330.00	10.00
구좌입금	10월 23일부터 11월 19일까지 총 470.00 * 헌납금 총 합계 1,010.00			

❖ 자진헌납금 ❖

2017년 10월 23일 — 2017년 11월 19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헌금납부 :

정마리아, 박준실, 최승진, 정순문, 강순행, 노정자, 정명옥,
 이철우, 김기연, 이종하, 배성우, 정정숙, 이정은, 현영애,
 김민옥, 김민수, 박성아, 신옥희, 심동근, 채규순, 한선지,
 윤예진, 한규호, 서세원, 최순남, 손수희, 김계희, 최장용,
 강신행, 이기열, 이경규, 이현묵, 이증지, 이궁중, 이석우,
 이정수, 이수용, 김용일, 김건, 김경미, 김영용, 우동전,
 옥종인, 진윤희, 문경희, 한말조,

구좌입금 :

이영원, 최화영, 문세바스티안 수진, 아일링호프 정숙, 홍경영,
 옥수 라니취, 박종래, 김유석, 방조영자, 김동수, 김원자,
 최성자, 허채열, 김부남, 백정선, 허두옥, 서유미, 이명원,
 이성원, 이상봉, 이정훈, 박준병, 김치수, 김수혜, 김진호,
 김대현, 강일남, 최현봉, 남궁준배, 허길조, 영희 에거스테트,
 권지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교회의 전례력으로 새해가 시작되는 12월입니다. 2018년까지는 달력 한 장이 더 남았지만 교회력으로는 새해인 만큼 신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아기 예수님의 은총과 사랑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2. 예수 성심 성당과 함께 하는 Weihnachtsmarkt(성탄바자회)가 12월 2일과 3일에 있습니다. 12월 2일 토요일에는 14시부터 18시까지, 12월 3일 일요일에는 12시부터 16시까지 바자회를 진행합니다. 원활한 행사의 진행을 위해서 12월 3일 대림 제1주일 미사는 오후 2시에 봉헌합니다. 신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도움을 주신 분들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3. 예비신자 교리반은 12월 10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습니다. 세례 전에 가지는 마지막 교리시간입니다.
4. 12월 10일 주일미사 후에는 사목협의회와 청년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12월 17일 주일미사 중에는 유아들의 세례식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는 모든 아이들에게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세례자 명단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6. 대림 제4주일과 성탄 대축일 미사를 안내합니다. 올해에는 대림 제4주일과 성탄 전야가 겹쳐 있기 때문에 24일에는 두 대의 미사가 있겠습니다.
12월 24일 대림 제4주일 주일미사 15:00 만남성당 강당
12월 24일 성탄 전야 미사 20:00 만남성당 강당
12월 25일 성탄 대축일미사 15:00 만남성당 강당
 25일 성탄 대축일 미사 중에는 성인세례식이 있을 예정이고, 미사 후에는 성탄예술제가 진행됩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되시는 모든 분들께는 축하의 인사를 드리며, 성탄예술제를 위해 재능기부를 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세례자 명단은 게시판에 올려놓겠습니다.
7. 12월 28일 목요일 19:00에는 만남성당에서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미사가 봉헌됩니다. 미사 중에는 아이들을 위한 안수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미사에 함께 하시어 아이들이 하느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8. 12월 30일 토요일 17:00에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송년미사를 봉헌합니다. 송년미사 후에는 음식 나눔이 있겠으니 각 가정에서는 음식 한 가지씩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음식 나눔 후에는 송년축제가 청년회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복권과 큰 상품이 걸려 있으니 청년회의 지시에 잘 따라 주셔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9. 12월 31일은 성 가정 축일 주일미사가 15:00에 예수 성심 성당에서 있으며, 1월 1일에는 천주의 모친 성 마리아 대축일 미사가 15:00에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됩니다. 1월 1일 미사는 한국 신자분들께서는 의무주일입니다. 미사 후에는 떡국 나눔이 있겠습니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

❖ Bremen 공동체 소식

-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 Hannover 공동체 소식

-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 3. 12월 하노버 공동체 미사는 12월 23일 오후 4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있습니다. 미사 전 성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성사를 보실 분들에게서는 미리 오셔서 성사 준비 하시면 되겠습니다.
- 4. 미사 후에는 성탄을 맞이하여 작은 축제가 있습니다. 공동체 가족들의 장기자랑 시간을 가질 예정이오니 가족들의 많은 끼와 재능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 1. 11월 정기미사는 11월 11일(토), 연중 제32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 2. 12월에는 은총의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 3. 12월 오스나브뤽 공동체 미사는 12월 9일 오후 5시에 봉헌합니다. 미사 전에는 성탄 판공성사가 있습니다.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후에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작은 축제가 있습니다. 장기자랑과 더불어 즐거운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및 연락처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 장	최 영 속 데 레 사	040/ 3742 0006 0157 5012 6332	
구역장모임	공지 시 넷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 장	각 구역장	각 구역장 참조	
주 일 학 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 감	최 영 자 파 울 라	040/ 3865 3332	
연 령 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 장	김 진 호 프란치스코	040/ 3742 0006 0152 0448 7382	
예 비 자 교 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공 석	대리 - 본당회장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매월 첫째 목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재미의 모퉁이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 장	이 순 자 마 리 아	040/ 4109 1742
	평화의 모퉁이	매주 수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현 영 애 헬 레 나	040/ 5480 1592 0176 6262 7429
	사랑의 모퉁이 (정년반)	매주 화요일 평일미사 후	만남성당	단 장	박 성 아 베로니카	0176 8011 2329
구 역	1구역	구역장	김 매 자 베로니카		8509768	
		총 무	김 정 속 마르타		8322587	
	2구역	구역장	허 채 열 크리스티안		5709734	
		총 무	이 영 희 체칠리아		5277854	
	3구역	구역장	이 현 목 요 셉		6011594	
		총 무	이 경 규 안스카		6045311	
	4구역	구역장	문 경 영 아가다		20971988	
		총 무	정 경 속 안 나		6729549	
정년부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 유 미 레지나		0171 867 2858	
		부회장	이 정 훈 요나스		0176 4345 2337	
요셉, 마리아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 장	심 은 희 안 나	0157 8045 2206	

12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금			
2	토		Weihnachtsmarkt	브레멘 공동체
3	일	대림 제1주일	14:00 주일미사	
4	월			
5	화			
6	수			
7	목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꾸리아	
8	금	한국 교회의 수호자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	19:00 대축일 미사	만남성당
9	토			오스나브뤽 공동체
10	일	대림 제2주일(인권주일, 사회교리주간)	청년 소공동체, 사목회	
11	월			
12	화			
13	수	성녀 루치아 동정 순교자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4	목	십자가의 성 요한 사제 학자		
15	금			
16	토			오슬로 공동체
17	일	대림 제3주일(자선주일)	미사 중 유아세례식	
18	월			
19	화			
20	수			
21	목			
22	금	동지		
23	토			하노버 공동체
24	일	대림 제4주일	15:00 대림 제4주일 미사 20:00 성탄 전야 미사	강당
25	월	주님 성탄 대축일	15:00 성탄미사(강당) 미사 중 성인세례식	미사 후 성탄예술제
26	화	성 스테파노 첫 순교자 축일		
27	수	성 요한 사도 복음사가 축일		
28	목	죄 없는 아기 순교자들 축일	연령회, 아이들 안수	만남성당
29	금	성탄 팔일 축제 내 제5일		
30	토	성탄 팔일 축제 내 제6일	17:00 송년미사(강당)	미사 후 송년잔치
31	일	예수, 마리아, 요셉의 성 가정 대축일		가정성화주간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최 영 숙 데 레 사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발 행 인 박 철 현 미 카 엘 g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내용은 함께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전, 미사 10분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ss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ss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